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the Elderly Abused by Their Children

Mi Kyoung Kwon<sup>1#</sup>, Mi Sun Joung<sup>2</sup>, Eun Mi Kim<sup>3</sup>, Sang In Nam<sup>4\*</sup>

<sup>1</sup> Department of Educational Science, Soonchunhyang University, 22 Suncheonhyang-ro, Asan, Chungcheongnam-do, Korea

<sup>2</sup> Chungnam Elder Protection Agency, 70 Oncheon-daero 1794beon-gil, Asan-si, Chungcheongnam-do, Korea

<sup>3</sup>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22 Suncheonhyang-ro, Asan, Chungcheongnam-do, Korea

<sup>4</sup>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 Counseling, Soonchunhyang University, 22 Suncheonhyang-ro, Asan, Chungcheongnam-do,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ssence and meaning of the experiences of the elderly abused by their adult children. This is a phenomenological study based on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with six elderly people who had experience in being abused by their adult children. The research questions include: (a) what are the experiences of the elderly abused by their adult children? and (b) what is the essence of their experiences? This study derived 11 components and 5 essential themes such as "hollow gesture toward child", "a stitch in time saves nine", "parent's heart toward child, anyway", "bridle not be able to be free from, child", and "hope like a scrap of thread".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oked social attention and provided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abused elderly based on the knowledge of their experiences, along with the implication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elder abuse, abuse by their children, phenomenological study

### 1. 서론

현대사회는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사회전반에 걸친 노인관련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의 소외와 고립, 노인자살, 노인고용 등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 중 노인학대는 현 사회에서 심각한 노인문제가 되고 있다(Youn, 2017).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노인복지법을 개

정하여 공적인 노인보호체계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센터를 설립하였고, 현재에는 32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학대 문제는 가족문제의 미시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사회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늘고 있으나(Park, 2000; Kwon, 2007; Sim, 2014), 학대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실태를 살펴보면, 2018년도

# The 1st author: Mi Kyoung Kwon, Tel. +82-41-530-1146, Fax. +82-41-530-1146, e-mail. maum-ahn@daum.net

\* Corresponding author: Sang In Nam, Tel. +82-41-530-1515, Fax. +82-41-530-1515, e-mail. sinam@sch.ac.kr

에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5,482건으로 2014년(10,569건) 대비 46.5% 증가하였고, 이 중 실제 학대사례는 2018년 5,188건으로 2014년(3,532건) 대비 46.9%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정 내 발생되고 있는 노인학대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44.9%가 자녀에 의한 학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발생률에 비해 학대피해자 본인이 관련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7.5%에 불과하였다(Central Elder Protection Agency, 2019). 이런 노인학대 증가대비 신고율의 저조함은 한국사회의 관습이나 특성을 잘 설명하는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노인학대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적 개입의 한계로 인해 노인학대 문제가 더욱 심각화·장기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높인다.

노인학대의 발생원인을 크게 피해자 요인, 행위자 요인, 가족환경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에서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원인의 세부요인으로 학대행위자 요인 중 개인내적문제(정서적 욕구 불만, 적대적 행위, 지나친 경계, 충동성, 분노, 사회적 고립과 반응의 결핍, 자신감 결여)가 35.6%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환경 요인에서 피해자와 행위자의 갈등 요인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Central Elder Protection Agency, 2019). 이는 적절한 가족관계의 상호작용의 어려움과 심리적인 문제가 노인학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보이며 우울감, 자아상실감, 무기력, 불안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eo & Ko, 2011). Sim(2014)도 학대받은 노인의 삶과 심리적 영향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여 학대받은 노인들에 대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보고하였고, 노인학대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하여 자살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Jung, 2013; Park, 2015).

우리나라의 노인학대는 현재 83.1%가 가족에 의해

일어나며 무엇보다 자녀로부터 학대를 받는 비율이 높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자녀에 의한 학대 경험은 노인 자신에게 더욱 깊은 수치심과 상실감을 갖게 하며, 가해한 자녀보다 피해자인 자신에 대한 죄의식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높아 심각한 절망감을 경험한다(Kwon, 2004; Kim & Kwon, 2008). 따라서 노인의 자녀에 의한 학대경험은 타인에 의한 학대경험보다 더욱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며, 노년기 삶을 혼란스럽게 하여 자신의 삶을 통합하기 보다는 절망적으로 유도하기 쉽다(Comijs, *et. al.*, 1998). 특히, 자녀에 의한 노인학대는 한국사회의 유교사상과 효(孝)사상의 영향으로 은폐성이 강하다. 학대피해노인들은 가해자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고발하거나 가족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려한다(Song, 2002; Lee, 2003). 즉, 피해자인 노인들은 가해한 자녀를 부적절하게 양육했다는 수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양가적인 심리, 학대에 대한 인식의 부족, 사회적 비난과 낙인의 두려움 등의 이유로 극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참고 인내한다고 한다(Kim, *et. al.*, 2006). 이러한 요인들은 피학대 노인들의 학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학대는 현재의 문제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 이상의 문제로써, 커커이 얽힌 자녀와 부모의 전 생애에 걸쳐 축적된 문제들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Kim, 2015). 따라서 노인학대의 발생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오며 형성된 가족 경험이 중요하며,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시작해 학대가 발생되기까지의 가족경험을 종단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Kwon, 2007).

이러한 관점에서 피학대 노인의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특성과 함께 학대가 발생하는 현상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학대노인의 가족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가 미흡하다. 특히, 자녀에 의한 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의한 학대

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자녀에 의한 학대 경험은 부모에게 있어 고통스러운 경험에 해당되고, 그 경험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주관적 경험에 해당되므로 양적연구로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의해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의 고통스러운 주관적 경험을 그들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는 현상학적 체험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특히, 학대 피해자에게 주는 영향이 타인, 친인척, 자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자녀에 의한 학대경험이 피해대 노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녀로부터 학대받은 노인의 경험의 본질을 분석하여 그 경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피해대 노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돕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에 의한 피해대 노인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자녀에 의한 피해대 노인의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현상학적 체험연구

경험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태도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 태도는 그들의 관점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관점은 그들이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연구참여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생활세계적 대상에 대한 태도 또한 동일하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태도는 주체가 세계전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경험의 주체가 경험하는 다양

한 생활세계적 대상에 대한 고유한 의미는 주체에 따라 상이하다. 즉, 각각의 연구참여자가 취하는 특정한 태도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세계가 경험된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그들의 고유한 능력, 즉, 내적지각능력과 반성능력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해석한다. 이러한 능력을 통한 연구참여자들의 체험연구가 현상학적 체험연구이다(Lee,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의한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체험을 그들의 생생한 시각을 바탕으로 그들이 체험한 피해대경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이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Kim, 2009). 결과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연구참여자의 생활세계를 ‘있는 그대로’, 그들의 경험을 ‘사태 자체’로 그들의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다.

### 2. 자유변경, 현상학적 환원 및 판단중지

자녀에 의한 피해대경험을 연구참여자들의 시각에서 ‘있는 그대로’, ‘사태 자체’로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일상 경험의 고유한 힘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 즉,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연구참여자의 일상 경험으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본질구조를 탐색하기 위해서 ‘자유변경’과 ‘현상학적 환원’이 필요하다(Yu, 2015). ‘자유변경’은 현상의 본질을 직관하는 형상적 환원의 한 가지 방법으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상상 속에서 주체를 변경시키거나 생략하여도 동일한 체험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또한 자유변경이란 특정 유형의 특정 경험이 가능하게 하는 특정 태도를 취하는 ‘태도변경’의 과정을 거쳐 체험의 본질을 직관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이 ‘환원’이다. 따라서 환원은 그 세계에 맞게 태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Lee, 2010; Lee, 2014). 즉, 자녀에 의한 학대를 체험한 피해대 노인들의 일상세계에 맞는 연구자의 태도, 피해대노인의 체험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연구자는 이전에 가졌던 태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야 하는 데

이를 판단중지(epoché)라 한다(Lee, 2014; Yu, 2015). 판단중지는 자연적, 물리적, 정신적 세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화적 존재들(가치, 종교, 법률 등) 및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경험과학 및 정신과학을 배제하고, 팔호 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중지를 통하여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이 되는 체험에 집중하는 과정을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한다(Lee, 2010; Kim, 2019).

본 연구에서 현상학적 환원의 과정은 기존에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노인학대에 대한 태도를 판단중지(epoché)하는 것으로 연구자의 태도를 변경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학대경험에 집중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현상학적 환원과 판단중지(epoché)를 함으로써 피학대노인의 체험에 집중하여 그 체험 자체가 드러내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여 그러한 체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이러한 피학대노인의 체험의 의미파악과 함께 그 체험이 발생되었던 연구참여자의 일상세계 구조와 성격 등을 포함하여 피학대 노인의 과거와 현재 환경, 연구참여자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린 선택과 결정에 대해 고려하였고, 그 당시의 감정, 표현 방식, 현재까지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그들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였다(Kim, 2009).

### 3. 자료수집

#### 1) 연구참여자와

참여자는 자녀에 의한 학대를 경험한 노인으로 충남지역에 거주하며 사례개입되었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판단표집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경험을 그들의 생생한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피학대노인이 처해진 상황과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였다. 참여자는 첫째, 자신의 경험을 자녀에 의한 학대로 인지하고 둘째, 자신의 경험을 적절히 잘 표현할 수 있으며 셋째, 학대 경험과 관련된 다른 경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고 넷째, 최근 학대피해경험이 2년

이내인 노인으로 모두 6명이다. 참여자 대부분은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그리고 방임을 경험한 노인으로 현재 기관에 입소한 노인 4명과 자가 거주 노인 2명이다. 학대지속기간은 1년에서 수년이었고, 현재까지도 자녀의 학대행동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 자녀와는 대부분 간헐적으로 연락하거나 단절된 상태이다. 참여자 대부분은 초등학교 졸업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왔거나 현재까지도 빈곤한 상태이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Gender Age	Interval of contact	Peculiarity of children	Period/type of abuse
A	Male 80	Intermittently	Dependency	2years/Neglect
B	Male 81	Ordinarily	Alcoholism	1year/Physical
C	Female 82	Intermittently	Financial problem	1year/Emotional · neglect
D	Female 66	Disconnection	Schizophrenia	Many years/ Emotional · physical
E	Female 82	Intermittently	Schizophrenia	Many years/ Economic · neglect
F	Female 81	No family	Liver cancer death	Many years/ Emotional

#### 2) 심층면담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5월 예비면담 2회를 실시한 후, 동년 5월부터 8월까지 심층면담을 하였다. 예비면담은 참여자들의 생생한 체험수집을 위한 질문지 작성과정으로 2명의 피학대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하였다. 참여자는 예비면담에 참여한 피학대노인 중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1명의 참여자와 판단표집을 통한 5명으로,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참여자 6명이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주제, 목적,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윤리, 연구자의 윤리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더불어 연구자는 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안내문을 소리 내어 읽어주었다. 연구안내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자료수집

을 위해 심층면담을 할 것이고, 1회 면담 시간은 100분이며, 2회 이상 면담한다. 둘째, 참여자는 자발적 참여 의사에 따라 연구에 참여해야 하고, 참여자는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되거나 연구의 최초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 셋째, 참여자는 자신이 응답한 내용에 대해 철회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넷째, 연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59조(금지행위) 및 제 60조(비밀유지)에 의해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를 통해 구성된 자료는 본 연구 이외의 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여섯째,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모든 사항(연구문제, 목적, 결과)에 대해 참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고, 참여자의 질문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연구안내문을 참여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 후 연구참여동의서를 받았다. 심층면담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하여 회당 60분씩 각각 2회 실시하려 했으나, 참여자들의 친밀하고 편안한 관계 형성을 위해 회당 약 100분씩 각각 3회 면담을 하였다.

심층면담에서 연구자는 피학대노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열린 질문과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질문을 하였다. 연구자는 피학대노인들의 생활세계의 경험과 관계된 일화, 학대 경험에 대한 일화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하였다. 더불어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여자들의 기분이나 마음상태, 타인과의 관계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르신은 심정은 어떠했나요?”, “그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떠했나요?”, “그 사건 이후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대신고 당시 예상했던 일과 그때 심정은 어떠했나요?”, “그 당시 어떠한 개입(도움)과 연계가 있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이는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중요한 과정으로서 참여자들의 생활

세계 경험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그들의 체험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Yu, 2015).

#### 4.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분석방법

노인의 자녀에 의한 피학대 체험의 본질을 탐색한다는 것은, 피학대자인 노인과 학대자인 자녀와의 생활공간 내에서 체험의 주체인 노인들의 체험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체험의 주체인 노인들이 체험의 대상이 되는 학대를 경험하면서 타인과의 관계, 변화와 전개과정, 자기와의 관계, 주체의 삶에 대한 의미, 주체의 가치평가, 시간성, 공간성,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사회성 및 역사성, 동기 및 목적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여 그러한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 스스로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Lee, 2014; Kim, 2019). 따라서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태도나 표정, 긍정 혹은 부정의 몸짓, 특정한 행동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심하게 관찰해야만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참여자들 스스로 드러내는 본질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노트를 마련하여 참여자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메모하였고, 분석 시 반영하였다. 또한 마지막 글쓰기를 하는 순간까지도 이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피학대노인의 체험 자체가 드러내는 고유한 특성에 집중하여 그러한 체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환원과 판단중지(epoché)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피학대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였다. 둘째, 학대자인 자녀는 미성숙한 성인이다. 셋째, 가정에서의 학대는 사회 환경과는 무관한 가정 내의 문제이다. 넷째, 자녀에 의한 학대는 특정한 가정에서만 발생한다. 다섯째, 피학대노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학대로 인지하고 있다. 여섯째, 자녀에 의한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한 무기력한 상태이다.

자료 분석 시에는 심층면담을 통한 면담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우선, 전체적인 의미에 집중하면서 직관적이고 본질적인 현상학적 의미를 파악하였고, 다음으로 문장 하나하나와 단어들에 현상과 체험에 어떠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연관 지으며 의미 있는 문장과 단어를 추출하였다. 의미 있는 문장과 단어를 추출한 후 의미단위를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로 범주화하였고, 범주화한 구성요소들을 바탕으로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Lee, 2017; Kim, 2019).

본 연구자는 이 과정을 통해 피학대노인이 경험한 학대경험의 본질을 이루는 5개의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 5. 연구의 엄밀성

현상학적 체험연구에서 엄밀성은 자료수집의 주요 도구가 되는 것이 연구자 자신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인식이 중요하다(Bae, 2012). 또한 참여자가 스스로 드러내는 본질현상에 대한 파악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연구수행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도구로서 연구자는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할 수 있다(Yu, 2009). 이에 Bae(2012)은 연구자는 참여자가 스스로 드러내는 본질현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고, Yu(2015)은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면서 그 자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의 엄밀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가 스스로 드러내는 본질현상에 대한 파악이 연구자 자신의 주관적 의견이 아닌 신뢰로운 의견이 될 수 있도록 선행논문을 제시하였다. 이는 참여자의 경험의 본질현상을 객관적 차원에서 밝히려는 연구자의 엄밀성에 해당한다. 더불어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은 선임연구자(박사학위 취득자 1명, 박사학위과정자 1명)들과 논의를 통한 수정을 반복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현상학과 관련된

워크숍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였고, 교내 연구스터디에 참여하면서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아울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피학대노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검사를 하였고, 학대노인과 관련된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 시에도 면담 이후에 녹음한 내용을 전사해서 읽어보고, 면담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다음 면담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이전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면담에 질문할 내용을 준비하였다. 마지막 면담이 끝난 후에는 글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동안의 면담내용에 관한 내용들을 연구자의 설명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과 함께 연구자는 참여자가 스스로 드러내는 본질 현상에 집중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에서부터 글쓰기를 하는 마지막까지 ‘현상학적 환원’과 ‘판단중지’를 하였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의 본질적 주제는 <자식을 향한 공허한 몸짓>,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다>, <그래도 자식인 부모의 마음>,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 자식>,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다.

다음은 5개의 본질적 주제와 11개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겪은 학대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진술한 내용이다.

### 1. 자식을 향한 공허한 몸짓

첫 번째 본질적 주제는 자식을 향한 공허한 몸짓으로, 참여자들이 자식들만큼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달픈 삶을 살아왔던 몸부림에 대한 고백들이다. 참여자들은 지난날의 인생을 녹록치 않은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자식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살았던 몸부림

으로 회상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그런 몸부림과 노력들은 자식들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식이 커갈수록 자신의 뜻과는 너무나 멀어지고 벗어나는 관계로 치닫게 되었던 그때를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다.

#### 1) 자식을 위한 몸부림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보다는 자녀의 풍요로운 미래가 더 우선이었다. 자식 밥 굶기지 않는 것, 건강하게 키우는 것, 좀 더 많이 가르치는 것, 모두가 참여자들이 자식에게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유산이었고, 그것을 해 주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다. 그러한 몸부림은 참여자들에 있어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옛날에는 그랬죠 그 집에 갔으면 그 집에서 빠가 되고 단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그래도 자식이 소중한지. 개네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만. 나도 좀 미련해요 개네들 건강하고 잘 먹고 학교 잘 다니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죠 내 새끼들만큼은...(Participant C)

내 자식한테만큼은 부끄러운 엄마가 안 될 것이다. 그런 일념으로 내가 살아왔다고 부끄러운 엄마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살아온 게 내 일편단심이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자식 뭐야 고생 안 시키고 밥 한 끼 안 굶기려고 내가 그리 살았지. (Participant D)

그 집에서 죽어도 빠까지 물어야지. 어른들 버리면 안 되고 가족을 버리면 안 되고 그 집 귀신으로 해야 하나까. 내가 유교사상이 투철해서 참고 살다보니 이 지경이.. 내가 아니면 생활이 안 되고 오직 내 새끼 살리려고 몸부림 쳤지. 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붙잡은 끈... (Participant F)

#### 2) 되돌아올 수 없는 강

참여자들의 젊은 시절은 빠듯한 생계유지를 위한 힘든 노동만이 존재할 뿐, 자녀와 함께 대화를 하거나 같이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다. 아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 그러한 부모의 고단한 삶은 부모의 선택일 뿐이었고, 자신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만의 세계였다. 그들에게 있어 부모의 부재는 단지 빈자리로만 느껴질 뿐이었다. 어린 시절 자녀들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강도 높은 노동의 긴 시간을 견뎌야 했고, 그러한 부모의 고단한 삶은 성장기 자녀들의 방임으로 이어졌다.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의 빈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갔고, 대화의 횟수도 줄어들어 지금은 아예 입을 닫게 되었다. 지금 부모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져 버려 거의 남남에 가까웠다. 이에 참여자들은 남남이 되어버린 자녀와의 관계를 되돌리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지나버린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후회만 가득하다.

돈이 없어 혼자 자라게 할 수밖에 없었슈. 자식한테 때리고 야단치는 일은 없어요 내 지금까지 궁둥이 한 번 안 때려 봤슈. 뭐 혼낼 일도 못 혼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말았죠 뭐. 저 혼자 굴레 벗은 망아지처럼 저 혼자 그냥 막 뛰어 댕기는 거라요 그걸 보면은 원인은 또 우리가 없이 살아서 별어 먹을라고 그 아를 그냥 놔뒀다는 게 원인 같아요 부모가 이렇게 참 한마디로 껴안고 이렇게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Participant A)

이제 나는 장사하느라고 자식 그걸 신경 쓸 수가 없고, 방을 얻어서 이제 밥만 나한테 와서 먹고 이제 학교를 가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대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Participant D)

자랄 때 현명한 방법을 취했어야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애도 저렇게 안 됐고 그니까 애도 저 병 난 것도 내가 나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마음속으로 쌓이고 쌓여서 여문 거예요 (Participant F)

## 2.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다

두 번째 본질적 주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다’로, 참여자들이 자녀들로부터 겪은 학대 발생 전후의 경험에 대한 고백들이다. 참여자들은 좀 더 빨리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했다더라면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고 있었고,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행동을 그냥 참고 살아왔던 과거행동을 후회하고 있었다. 자식과의 관계가 예전부터 소원해져 대화가 잘되지 않았기에 참여자들은 이제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녀에게 어떤 말도 하기 어렵다. 자신들이 나이가 든 만큼 자식들이 장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에 의한 학대는 여전히 가족과 개인의 일로 인식되어 외부로 노출될 경우 사회적 낙인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입을 굳게 닫을 수밖에 없었다(Lee, 2003). 이는 효(孝)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맞물려있다. 자식의 학대가 외부로 노출될 경우 자식이 받아야 하는 비난과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타인의 인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감싸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참여자들은 혹시라도 자식이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 두려워 그 누구에게도 자식의 잘못을 얘기할 수 없었다. 이러한 자식을 위한 부모의 은폐는 학대 발생이후 개입과 예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대부분은 수 년, 수십 년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의 학대 지속기간 역시 1년에서 수년 동안 반복되고 있었고, 부모가 자녀의 학대를 학대로 인식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되었다.

### 1) 병어리가 된 부모

이제 자식은 부모가 어떠한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다. 그러한 부모는 자식과 대화를 시도해 봤지만 화만 내는 자식의 모습을 보며, 별떡이는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자칫 잘못하여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 염려스러워 하고 싶은 말도 속으로 삭혀야만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는 자신의 마음을 자식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인내하며 속으로만 속을 끓이고 살 수밖에 없었다. 해야 할 말과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삭히며 살아가면서 자식과의 갈등과 오해는 더욱 커져만 갔고, 남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속앓이는 더욱 심해져만 갔다.

안 들어.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말은 못 하고 혼자서 속 끓이고 속쓰림, 속앓이 병이 생겼어요. 남 부끄러워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나 때문에 아버지를 잃고 니가 왜소하게 마음도 몸도 왜소하게 자랐구나. 저는 개 생각할 때마다 피눈물이 나오 정말.. 내 책임. (Participant E)

막 들이 받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죠 뭐라고 하면 그냥 막 들이받고 하니깐 못해요. 말 한마디를 못 했어요. 딸년이 뭐 나가라 소리 뽁뽁 지르고 지랄지랄해도 그냥 입 꼭 다물고 있다가 병어리가 되었죠. 내가 이거를 어떡 하소연하고 자식을 참 어떡 한마디 해요. 내 얼굴에 침 뱉기지. (Participant C)

술 먹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지가 받아들이는 걸 잔소리로 받아들이. 날 잔소리한다고 화내고 지가 나를 미워하니 내가 말을 못 하지. 뭐 술 안 취했을 때도 대화하거나 이런저런 것도 서떡서떡해 못 하고. 혹시나 술 먹고 행패나 부리면 지 아버지 망신 내 망신이니깐. (Participant D)

### 2) 호랑이가 된 자식

Kim, et. al.(2004)은 그의 연구에서 학대받는 피학대

노인의 중심현상은 무시당함과 힘의 상실이며, 그 밑바탕에는 한이 깔려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참여자들도 부모로서 힘의 상실과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경험을 했다고 하였다. 부모는 나이 들어 쇠약해지는데 반해 자녀들은 장성하여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자녀들은 그동안 소원했던 부모와의 관계로 인해 쌓아 두었던 감정들을 여과 과정 없이 그대로 부모에게 드러내었다. 나이 든 부모는 더 이상 예전의 부모가 아니었다. 젊은 시절 호기롭고, 고된 노동을 견뎌내었던 부모는 이제 90을 바라보는 쇠약한 노인이 되었다. 때문에 여과 없이 드러내는 자식의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내야만 했다. 부모로서 상실한 힘과 권위는 결국 학대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이 된 참여자들은 호랑이처럼 힘이 세져 버린 자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감과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자기가 사는 것도 신세한탄을 이렇게 험악하게 할 때 만만한 게 제일 가까이(가까이) 있는 부모지 뭐. 한 몇 년 전까지는 내가 그때가 뭐 그거는 감당했었는데 이제는 늙어서 몸도 늙고 이제 소리만 지르면 벌벌떨리죠 내가 감당을 못해. 내가 피해야죠 무서워. 완전히 돌아가지고 미쳐서 애비인지도 모르고 지가 죽일까봐... 창고에 들어가 앉아서 밤새우고 들어온 일이 있어요. (Participant B)*

*막 불을 싸지른다지 뭐 어쩐다지. 내가 위협이 돼서 밥에 잘 때 잠이 안 와요. 불안해서. (Participant D)*

*그게 나한테는 안 댄벼 드는데 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악하고 댄벼 들어. 여기를 꼭 잡으니까 내가 뭐 힘 있어요? 그냥 여기를 꼭 잡으니깐 폭떨미니깐 주저앉았어요. (Participant C)*

### 3. 그래도 자식인 부모의 마음

세 번째 본질적 주제는 그래도 자식인 부모의 마음이다. 이는 학대 이후 참여자들의 상처가 컸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참여자들의 양가적 감정에 대한 고백들이다. 참여자들은 학대 이후 수치심과, 배신감, 비참함, 절망감 등의 감정으로 현실의 삶이 엉망이 되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몸과 마음에 심한 상처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내 자식이니까’로 모든 학대의 결과를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 Kim(2006)은 자녀에 의한 학대 시 부모는 자녀보다 스스로를 비난하며 자신을 죄인 시 한다고 하였는데, 참여자들도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인식하였고, 심한 자책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학대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두둔하며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원했다.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한 자신의 경제적 무능을 한탄했고, 못난 부모 때문에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하고 성장하였던 자식의 성장과정을 안타까워했다. 그러한 이유로 자녀의 현재 학대행동의 원인을 자신에게 두고, 자신을 많이 자책하였다. 자식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와 같은 인식은 노령연금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주려하는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 1) 남는 건 상처뿐

참여자들은 학대 이후 고통 없이 세상 떠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찢어지는 심정과 가슴에 멍을 안은 채 혼자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만 지을 수밖에 없었다.

*너무너무 나한테 큰 상처를 줘서. 상처도 그런 상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땐 그냥 저기 저 애를 내가 안 낳았으면... 자식이 그럴 땐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한참을 창밖을 내려다보고 눈물만... (Participant C)*

*처음에 그 사실은 자녀이기 때문에 죽고 싶지만 맞는 것도 피로운데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참 마음이 찢어지죠 그때 내가 죽었어야 했어. 그랬으면 뭐 이 꼴 저 꼴 안 보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을 수 있다면 죽는 게 낫았지. 죽는 게 뭐라고 (Participant F)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날 수만 있다면 세상 떠나려고 했어요 죽고 싶은 심정이죠 속상해도 어쩔 수 없고 하늘을 쳐다보고 혼자 한숨을 지을 수밖에.. (Participant A)

2) 자식이라는 끈, 놓을 수 없는 부모마음

참여자들은 자식의 학대로 인해 자식이 원수 같고, 때려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였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차마 자식이라는 끈을 놓을 수 없다고 하였다. 학대했던 자식에게 분노와 두려움이 생겼지만 끝없이 자식을 품고 이해하려 하였다. 참가자들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인데. 원수 같더라도 죽이라고 합니까? 그래도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 마음, 안 그렇습니까? 오죽하면 부모를 버렸겠슈? 오죽하면. (Participant A)

때려죽이고 싶죠 그 당시에는 때려죽이고 싶어도 자식인데 어떻게 부모인데... 그래도 마음으로는 그게 아니죠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쩔 수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마음은 죽겠죠 (Participant F)

4.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 자식

네 번째 본질적 주제는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 자식이다. 참여자들은 학대를 당하면서도 혼자서 어떻게든 스스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버텨내고 있었다. 자식이 학대 행위자이지만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갈 데가 부모인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학대를 당해도 그들을 돌보며 살아왔던 것이다. 자녀들의 폭력으로 인해 피폐해진 자신의 생활 터전의 뒷수습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당하며 살아왔

다. 참여자들은 이런 모든 상황을 내 운명이고 내 팔자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었던 것이다. 학대 행위자인 자식과의 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식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기도 하고, 자식을 피해 비닐 하우스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그렇게 자식과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어떻게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참고 견디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렇게 무조건 참고, 모든 것을 다 내주었던 참여자의 행동들은 학대 행위자의 의존을 더욱 부추기게 하여 학대를 지속적으로 반복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노령연금마저도 부모에게 요구하는 자식에게 더 이상 달리할 방법도 없고, 당해낼 힘도 없이 끊임없이 내어주며 살고 있을 뿐이었다.

1) 풍랑 맞으며 견디기

참여자들은 이런 상황과 현실을 어쩔 수 없는 내 운명, 내 팔자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 자식이기에 어떤 원망을 할 수도 없이 이 모든 풍랑을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냥 내가 타고 났으니깐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하고 살아야지 하고 다시는 입을 안 벌렸죠 (Participant C)

뭐 이런 일이다 내가 타고난 팔자인가 보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어떻게요 (Participant E)

애들 지키기 위해서 버텨지. 내 운명 새끼니까. 내가 쓰러지고 없으면 만주별판이잖아요 버텨지. 어쩔 수 없이... (Participant F)

2)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참여자들은 대부분 90세를 바라보는 나이로,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가지고 있는 힘이나 돈도 없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노령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지금까지도 자식을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위해 애쓰고 있

었다. 자식을 위한 끝없는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끝없이 힘든 삶만 반복될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호랑이로 변해버린 자식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불안을 끌어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연금 고져 가지고 살림하고 사는데 이게 시방 또 헛되이 못 써요 늙은이 혼자 밥 끓여 먹는다 오죽허겠어유. 밥 한 번 해놓으면 사흘도 가고 나흘도 가고 그래요 또 술 먹은 아들이 애비인지도 모르고 죽일까봐. (Participant B)*

*뭐 어떻게 노령연금 나오는 것도 귀신같이 용케 알아 연금마저 달라고 하고 그렇게 사고치고 물어내고.. 요만큼도 변화가 없어요 (Participant A)*

*뭐 한다고 뭐 배운다고 돈 얼마 해 보라. 해주면 돈을 어따 썼는지 배우지도 않고 없어지고 그래서 접고 그래요 그냥 사뭇 속 태우는 거예요 (Participant C)*

##### 5. 실오라기 같은 희망

다섯 번째 본질적 주제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으로 참여자들의 학대 이후의 삶에 대한 고백들이다. 참여자들에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삶에 자의든 타의든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학대 초기에는 상황을 은폐하여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더 이상의 대안이 없게 되자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뜻하지 않게 받게 된 주변의 도움은 천국과도 같은 안식처가 되었고, 최고의 선택은 아니지만 실존적 한계에서 최선의 선택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이제 호랑이로 변해버린 자녀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답게 살기를 원했다. 비록 자녀의 정신질환, 알코올 문제, 노숙자의 삶 등 학대와 관련되어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머물 곳이 없어 시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참여자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비록 타인이 보기에 희망이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참여자 자신들은 현재의 삶에서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식이 잘되길 소망하고, 자유로운 산책과 텃밭 가꾸기와 같은 소일거리를 하면서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하였다.

##### 1) 내 마음의 안식처, 쉼터

가해자인 자녀와 분리가 필요하거나 더 이상 거주할 곳이 없는 참여자들은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서부터 학대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쉼터는 몸과 마음이 상하고 찢겨진 참여자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참여자들의 천국이 되어주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자식과 불안한 상황과는 다르게 이곳의 한결같은 친절함은 참여자들에게 더욱 큰 따뜻함으로 치유를 해주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천국과 같은 이곳에서도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인간취급도 못 받을 텐데.. 여기서(쉼터) 불안하거나 이런 게 없고 친절마냥 편안했지요 내 집에 전쟁이 없던 것 같이 편안했어요 마음을 보듬어 주더라고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좀 치유되고 마음이 누그러지지.. 그래도 여기(쉼터) 있어도 자식 걱정 땀에 잠을 잘 못 자요 (Participant F)*

*여기가 그렇게 잠자리도 좋고 마음이 편해. 나한테는 그 이상 또 천국이 없지.. 그렇게 속 썩이던 아들 당장은 안 보고 술 먹는 꼴 안 보니까 세상 편하고 좋은 기라. 근데 내가 여기 서서 있는데, ‘내가 집에 있으면 가가 좋아하는 고깃국이라도 좀 끓여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싶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드는데.. 사실 여기 있어도 몸은 편해도 마음은 안 편치. 항상 자식이 걱정되고 자식만 보고 살아왔는데 자식이 혼자 있으니깐 걱정이 되니까. (Participant D)*

*여기 선상님들 요만큼 변화도 없이 한결같아요 그 게 참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나는 여기가 천국으*

로 생각해요 지금은 절망 속에서 싹 사라지니까 건강해진 거 같아요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근데 아직도 자식만 걱정하면 피눈물이... (Participant E)

2)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삶, 현실 안기

참여자들은 현재 삶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자녀와의 갈등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걸 선택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거나, 자식이 좋아지길 바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순응하며 살고 있었다.

지금 선택이 최선인 거죠 이 늙은이가 이보다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어요? 그냥 받아들여야죠..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지금 여기 생활, 이걸 선택하죠 (Participant E)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 있으니까 더 이상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Participant C)

뭐 어떻게 합니까? 속상해도 어쩔 수 없는거고.. 여기 나가면 갈 데가 있어요? 앞으로 살아본들 뻔한 인생인데.. 니가 마음을 잘못 먹고 그렇지. 설마 또 그러겠냐.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이렇게 맘을 잡고 살아야죠 (Participant A)

3) 희망 품고 그래도 살아내기

본 연구의 인터뷰 과정에서 인상에 남았던 것은, 참여자들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힘겨운 삶 속에서도 각자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아낸다는 점이었다. 참여자들은 학대에만 집중하며 살 수 없었다. 살아가야 할 ‘삶’이 더 시급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고령의 나이에 더 이상 나아질 것도 없는 현실의 삶 속에서도 각자 작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했다.

앞으로 그러니까 희망도 없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는 텃밭 소일거리라도 사람들 생활을 이어 가게끔 해 주면은 희망이 생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요 (Participant F)

뭐 집 한 칸, 방 한 칸이라도 있으면 저하고 나하고 끓여 먹던지, 그렇지 않으면 참 좋은 다른 여자 만나서 지들끼리 사는 것도 좋구요 그것뿐이에요.. 가다보면 인간이 되겠지. (Participant A)

내가 오래 살아 우리 자식, 손주들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가? 확인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고도 싶고 그래서.. 더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생겨 살아가는 거죠 (Participant E)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에 의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경험과 그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현상학적 체험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녀에 의한 피학대 경험이 있는 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다.

그 결과 자녀에 의한 피학대 노인의 경험에서 최종적으로 11개의 구성요소와 5개의 본질적 주제인 <자식을 향한 공허한 몸짓>,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다>, <그래도 자식인 부모의 마음>,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 자식>,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본질적 주제인 <자식을 향한 공허한 몸짓>은 자식들만큼은 자신과는 다른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픈 참여자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고백들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는 자식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갈수록 자식과의 관계가 엇나가게 되어 학대의 원인만이 될 뿐이었다. 이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9)의 노인학대 발생원인의 조사에서 노인학대의 원인으로 피해자와 행위자의 개인

내적문제 즉, 정서적 욕구불만, 적대적 행위, 분노, 사회적 고립과 반응의 결핍이 가장 높다는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두 번째 본질적 주제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다>는 참여자들이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노력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 고백들이다. 참여자들은 고달픈 삶으로 인해 소원해진 자식들과의 관계 때문에 자식들과 대화가 어려웠고,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성이 강해지는 자식들의 행동을 보면서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는 Song(2002), Lee(2003)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효(孝)사상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였다. 이는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한 방해요소가 되었고, 학대 행위자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세 번째 본질적 주제인 <그래도 자식인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에게 학대를 받았지만 그래도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참여자들의 마음에 대한 고백들이다. 참여자들은 자식들에게 당한 학대로 수치심과 배신감, 비참함, 절망감이 생겼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심정이었다. 또한 자신들의 무능과 무지로 자식의 삶이 피폐해졌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자녀에게 학대를 당한 부모는 자녀를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죄인시하며, 타인에 의한 학대보다 더욱 깊은 수치감과 상실감을 갖게 한다(Kwon, 2004; Kim, et. al., 2006)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네 번째 본질적 주제인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 자식>은 참여자들이 자식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참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백들이다. 참여자들은 자식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디고 살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자식들의 폭력과 무관심의 지속적인 반복뿐이었다. 이는 고달픈 자신의 인생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했고, 그렇게 고달프고 비루한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타고난 운명만을 탓하며 고스란히 받아들이고만 있었다. 참여자들은 노령연금에

의지하고 살고 있었지만, 자식들은 노령연금마저도 요구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에 참여자들은 자식을 당해낼 힘도, 달리 다른 방법도 없기에 끊임없이 내주며 살고 있었다.

다섯 번째 본질적 주제인 <실오라기 같은 희망>은 어쩔 수 없는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 속에서 작은 희망을 찾으려 살고 싶어 하는 참여자들의 소망에 대한 고백들이다. 참여자들이 현재 거처하는 입소 시설(쉼터)은 타인의 눈에는 희망이 없는 곳처럼 보이지만, 참여자들은 자식들의 학대상황에서 벗어난 이곳이 천국처럼 느껴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식들의 걱정으로 인해 늘 무거운 마음이다. 참여자들 현재의 삶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힘겨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 그동안 온갖 풍파를 겪으며 자식들을 지켜냈던 것처럼...

이상과 같이 자녀에 의한 피학대 노인의 학대경험에 관한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빈곤했던 삶과는 다른 삶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 힘든 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는 공허한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뒤늦은 후회를 해봤지만 자식들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도 참여자들은 자식이기에 자녀들의 학대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만 했고, 지금까지도 벗어날 수 없는 자식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품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참여자들은 희망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자녀에 의해 발생하는 노인 학대는 현재의 문제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 이상의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는 학대로 드러난 다양한 행위가 커져이 얽힌 자녀와 부모의 전 생애에 걸쳐 축적된 문제들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Kim, 2015). 따라서 노인의 피학대경험은 학대가 발생한 시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그들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젊은 날 자녀들에게 부유한 미래를 만

들어주기 위해 온갖 노동을 감내하며 자녀를 위한 길을 택했다. 그 길에는 참여자들의 평안과 안위 따위는 없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참여자들의 마음과는 다른 길을 갔을 때에도 자녀들이 잘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자식들을 믿어왔다. 참여자들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늘 부족한 자신의 능력을 자책하며, 자녀들에게 늘 미안해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현실세계는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았다. 6명의 참여자들 모두는 가난을 대물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고, 학교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때문에 참여자들은 고된 육체노동밖에는 할 일이 없었다. 오랜 시간 노동을 해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수입은 근근이 살아갈 정도였고, 자녀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가질 엄두도 내질 못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오로지 자녀들 만큼은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고픈 마음으로 열심히 일만 할 뿐이었다. 그러나 자녀들은 미래의 부유함보다는 현재의 포근함이 더 절실했고, 자녀들은 그러한 점을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들을 원망하며, 부모와 자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대부분 사람들은 학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부모들이 불성실하거나, 폭력적이거나 게으르고 또는 무관심으로 자녀를 양육해서 학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타고난 인성이 나쁘거나 폭력적 성향이 많기 때문으로 본다. 본 연구자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연구하는 동안 현상학적 환원과 판단 중지에도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생활세계에 들어가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접해보니, 연구자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성실했고, 자녀에 대한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했다. 참여자들은 오직 자식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성장해왔던 환경과는 다른 환경을 주고자 노력했다. 자식들도 끊임없이 부모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들의 현실세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만약 그때에 그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주어졌더라면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았을까?

참여자들은 또한 오랜 기간 학대에 시달리면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였지만 누구에게도 말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들을 향한 끊임없는 자녀사랑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비록 참여자들의 자녀사랑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참여자들에게 만큼은 부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녀사랑의 방법이었다. 자녀의 학대를 피해 시설에 입소하였지만, 끊임없이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하는 참여자들은 오늘도 나름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전적인 학대 피해자 역할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Donovan & Hester, 2010).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견뎌내기 위한 자신만의 희망을 품고 살아내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능력이 되는 데까지 자녀들을 돌보기 원했고, 그들을 마음으로 안았다. 내 자식이니까...

이와 같이 자녀에 의한 피학대 노인의 경험을 살펴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지지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학대피해노인은 학대 가해자가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심리적인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더욱 양가감정이 심했으며, 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다. 자녀에 의한 학대는 한국문화에서 자녀와 부모 모두의 치부로 여겨져 오히려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려 한다. 이렇게 은폐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심리적 상처로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학대로 명든 노인의 심리적인 상처는 반드시 심리적 개입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쉼터에 심리상담의 개입을 위한 인력 배치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실제로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의 보호노인 중 상담서비스의 도움을 받은 후 우울증이 99.4%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제공서비스 현황을 보면 개별상담은 26.9%, 학대피해노인의 관련자로서의 이웃, 회사동료

등의 관련자상담은 22.2%를 진행했으나, 가족상담은 8.4%, 집단상담은 0.2%에 그치고 있다(Central Elder Protection Agency, 2019). 따라서 상담서비스 안에서도 전문상담사의 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모든 노인의 심리적 상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에게 그들의 은폐성에 대한 보편성을 이해시키고, 비밀보장을 확보한 후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상처를 나눌 수 있는 지속적인 나눔의 장이 필요하다. 혼자만의 문제나 아픔이 아닌 심리적 아픔을 함께 나눌 때 심리적인 상처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인학대 관련기관 차원에서 자녀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피학대 노인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길 원했다. 비록 학대하는 자식이며, 자신의 노령연금마저 빼앗아 갔지만 그래도 항상 자식 걱정이 앞선다. 그렇게 자신에게 학대했던 이유도 자신이 가난해 못 배우고,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한 것이라 자책하면서 먼저 접촉을 시도하기 어려워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학대 노인의 특성과 심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관련기관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도모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 관계를 회복하여 자녀와 함께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학대피해노인의 개입 시 좀 더 체계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문제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자녀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노인학대의 원인을 살펴보면 학대행위자 개인의 내·외적인 기질적 특성도 있지만 성장과정과 가정환경 안에서 전 생애를 통해 발생되었던 문제들이 다세대로 전수된 양상을 볼 수 있다. 학대 개입 시 결과론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세대로 전수되면서 커져이 쌓인 문제와 해결되지 않았던 갈등이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악화시켜 학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개입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가족체계 안에서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학대와 연결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노인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유기적 결합을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노인들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살피는 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피학대 노인들은 학대가 발생되더라도 은폐하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 될 경우 타인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문제의식을 갖고 신고할 수 있도록 외부 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 13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을 시행(긴급복지지원법 제7조)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 취약 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학대위기에 처한 노인들을 초기에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학대의 법적 개입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학대는 학대행위자의 폭력적인 성향 뿐 아니라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다양한 정신질환에 의한 학대가 발생되고 있고, 부모인 피학대 노인에게 정신적·경제적 의존을 야기하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심리치료 권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에 대한 미흡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사항 부재 등이 노인학대의 법적 개입 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친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가정 내 학대가 사회문제로 공론화되어 학대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정 내 발생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기 위해 언론 등을 통한 홍보와 더불어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의 대중화를 통해 인권보호 및 인식 개선 등 노인학대 예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학대를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을 넘어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References

- Bae, Sang Sik. 2012. The Qualitative Research Issues for the Application of Phenomenological Method.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8(1): 1-21.
- Central Elder Protection Agency. 2019. *2018 Report on Elder Abuse*. 9-209.
- Comijs, H. C., A. M. Pot, J. H. Smit, L. M. Bouter, and C. Jonket. 1998. Elder Abuse in the Community: Prevalence and Consequences. *Journal of American Geriatric Society*. 46: 885-888.
- Donovan, C. and M. Hester. 2010. I Hate the Word "Victim": an Exploration of Recognition of Domestic Violence in Same Sex Relationships. *Social Policy and Society*. 9(2): 279-289.
- Jung, Hae Lan. 2013. Study on the Influence of Elderly's Abuse Experience on Suicidal Ideation : Focused on the Moderation Effects of Coping Behaviors and Emotional Support. Ph.D. Dissertation. Seoul Hanyoung University.
- Kim, Ae Ryeong. 2009. The Problem of Methodological Application of Phenomenology and Hermeneutics: Phenomenological Foundations and Hermeneutical Expansion of "Lived Experience Research". *Journal of Trans-humanities*. 2(1): 231-258.
- Kim, Eun Mi. 2019. Exploration on the Sence of School Discipline Experienced by High School Students: Based on Michel Foucaults "Disciplinary Pow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6(4): 323-354.
- Kim, Ki Ryeon, Myung Hee Kim, Myung Ok Cho. 2006. The Experience of the Sockalee of Abused Elders.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18(3): 405-415.
- Kim, Mee Hye and Kum Ju Kwon. 2008. Study on the Process of Abusing Elders by Daughter-in-Laws.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8(3): 403-424.
- Kim, Yeong Kyeong, Young Hae Kim, Jin Hyang Yang, Youn Ja Yoo, and Young Sook Tae. 2004.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Abuse Experience Among Korean Elderly Wome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5(1): 9-21.
- Kim, Yu Jin. 2015.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Abused Older Adults Regarding Abuse Recurrence and Adult Protective Servic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2): 315-346.
- Kwon, Jung Don. 2004. A Study on the Casual Factors of Elderly Abus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4(1): 1-19.
- Kwon, Kum Ju. 2007. Study on the Process of Abusing Elders: Centering Around the Experiences of Offending Daughter-in-laws.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Lachs, M. S. and K. Pillemer. 1995. Abuse and Neglect of Elderly Person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2(7): 437-443.
- Lee, Hyei Jung. 2017.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Outsiders' Experience of Female Adolescents in the School Violence: Based on the Concept of Thinking and Action of Hannah Arendt. Ph.D. Disserta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 Lee, Jung Pil. 2005. The Psychological Damage to the Elderly from the Experience of Abus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Lee, Nam In. 2014.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Seoul: Hangilsa: 32-104.
- Lee, Nam In. 2010.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9: 91-121.
- Lee, Yun Ho. 2003. The Impact of Familial Risk Factors on the

- Psycho-social Effects of Elder Abus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1: 35-57.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2018 A Guideline for the Prevention of Abuse of the Elderly. Report on Elder Abuse.
- Park, Bong Gil. 2000. Strategies for Helping Victims and Perpetrator by Analysing Perception of Mistreated Elders. Ph.D.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Park, Wan Kyu. 201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buse Experience on Ideation of the Elderly. Ph.D.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 Seo, In Kyun and Min Seok Ko. 2011. Effects of the Elderly's Abuse Experiences on Their Suicidal Ideation & Mediation Effects of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1): 127-157.
- Sim, Mi Young. 2014. The Impacts of the Abused Elder's Damage Experience on Mental Health : Focusing on the Moderation Effects of the Elderly's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the Use of Community Resources. Ph.D.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 Song, Young Min. 2002. The Dependency and Abuse of Elderly Women. Ph.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Yu, Hye Ryeong. 2009. Questions of Reflexivity and Research Techniques in Phenomenologically-oriented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Child Education*. 18(1): 37-46.
- Yu, Hye Ryeong. 2015. Logic and Methods of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Focusing on Max van Manen's Methodology. *Family and Consult*. 5(1): 1-20.
- Youn, Ki Hyok. 2017. 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to Elderly Abuse in Elderly C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 Focused on Precedents after Enforcement of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44(3): 247-281.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권금주. 2007. 노인학대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권중돈. 2004.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회*. 24(1): 1-19.
- 김기련, 김명희, 조명옥. 2006.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 경험. *성인간호학회지*. 18(3): 405-415.
- 김미혜, 권금주. 2008. 며느리에 의한 노인학대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8(3): 403-424.
- 김애령. 2009. 현상학과 해석학의 방법론적 적용의 문제: '체험 연구'의 현상학적 토대와 해석학적 확장. *탈경계 인문학*. 2(1):231-258.
- 김영경, 김영혜, 양진향, 유연자, 태영숙. 2004. 한국 여성 노인의 학대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질적연구. 5(1): 9-21.
- 김유진. 2015. 가정 내 반복적인 학대발생과 외부 개입을 체험한 피학대 노인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35(2): 315-346.
- 김은미. 2019. 인문계고등학생이 경험한 학교규율의 본질탐구: Michel Foucault의 『규율권력』을 바탕으로. *청소년학연구*. 26(4): 323-354.
- 박봉길. 2000. 노인학대 인식도 분석을 통한 사회사업 원조전략.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박완규. 2015. 노년기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배상식. 2012. 질적연구를 위한 '현상학적 방법'의 적용 문제.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28(1): 1-21.
- 보건복지부. 2019. 2018년 노인학대 예방업무 수행지침.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서인균, 고민석. 2011. 학대경험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31(1): 127-157.
- 송영민. 2002. 노인 여성의 의존성과 학대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심미영. 2014. 노인학대 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피해노인 행동특성과 지역자원 이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유혜령. 2009. 교육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의 성찰과 연구 기법의 문제. *아동교육*. 18(1): 37-46.
- 유혜령. 2015.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논리와 방법: Max van Manen의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가족과 상담*. 5(1): 1-20.
- 윤기혁. 2017.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판례분석 연구: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후 판결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4(3): 247-281.
- 이남인. 2010.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대한질적연구학회*. 9: 91-121.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연구. 서울: 한길사. 32-104.
- 이연호. 2003. 학대 경험노인의 심리: 사회적 피해에 대한 위험요인의 영향. 한국가정복지학. 11: 35-57.
- 이정필. 2005. 노인 학대경험이 심리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혜정. 2017. 학교폭력에서 여자청소년의 방관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나 이렌트의 사유 및 행위 개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 정혜란. 2013. 노인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연구: 대처양식,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

Received: Oct. 20, 2019 / Revised: Dec. 10, 2019 / Accepted: Dec. 18, 2019

## 자녀에 의한 피학대 노인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에 의한 피학대 노인들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를 위해 현상학적 체험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자료수집을 위해 자녀에 의한 학대를 경험한 6명의 노인과 심층면담을 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자녀에 의한 피학대 노인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자녀에 의한 피학대 노인의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다. 그 결과, 11개의 구성요소와 5개의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자식을 향한 공허한 몸짓>,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다>, <그래도 자식인 부모의 마음>,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 자식>,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라는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피학대 노인의 경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피학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노인학대, 자녀에 의한 학대, 현상학적 연구

Profiles **Mi Kyoung Kwon** : She received the master's degree in psychotherapy from Soonchunhyang University. After completing Ph.D. coursework at the Department of Educational Science in Soonchunhyang University, she worked as a psychotherapist at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Now she serves not only as the head of the Maum-ahn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but also crisis management consultant for various groups including the Asan City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suicide risk counselors, Elder Protection Agency, and suicide victim family counselors. She is interested in crisis interventions such as suicide and abuse([maum-ahn@daum.net](mailto:maum-ahn@daum.net)).

**Mi Sun Jung** : She received the master's degree in psychotherapy from Soonchunhyang University. Currently she works as director in Chungnam Elder Protection Agency. She gives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family to keep abused older adults safe and recover their roles as a family member through case studies on elder abuse. Her interest is in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human right protection([ms2981@naver.com](mailto:ms2981@naver.com)).

**Eun Mi Kim** : She received the master's degree in psychotherapy from Soonchunhyang University. After completing the Ph.D. coursework at the Department of Educational Science in Soonchunhyang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 is about learned helplessness of adolescents([hanpeoples@daum.net](mailto:hanpeoples@daum.net)).

**Sang In Nam** : He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Counseling in SoonChunHyang University and has received the Ph.D.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Iowa at the department of Counselor Education in 1993. His major concern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youth counseling, group counseling, and counseling supervision([sinam@sch.ac.kr](mailto:sinam@sch.ac.kr)).

